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악의적인 파괴행위도 보상 가능합니다.
010-7344-1881 (서일석)

불교신문

2016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마음이 쉬는 佛 공간事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2016.3.24 - 3.27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60년 2월 20일 (2016년 / 단기 4349년 음력 1월13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178호 토

"너의 첫 학교생활 응원할게"

아름다운동행, 책가방 전달식
7번째 '선재의 선물' 캠페인
KB국민카드 올해도 1억 후원

마냥 장난만 칠 것 같은 개구쟁이 대한이(8)가 사뭇 진지하게 스님에게 합장 반배를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과 환호가 터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우혁이는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자 놀란 얼굴을 하며 엄마 품에 쏙 안겼다. 직접 책가방을 매주던 스님은 천진불 같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저소득 가정 예비초등학생에게 연필과 지우개, 공책, 신발주머니 등이 담긴 책가방을 전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선재의 선물' 7번째 전달식이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이날이 동등한 출발의 시작이자 희망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인 잣대로 너와 나를 구분짓는 데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준 후원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KB국민카드 임직원들도 함께했다. 임직원 60여명은 전국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예비초등학생에게 전달될 책가방 1600여개를 직접 포장하며 정성의 손길을 더했다. 정성호 KB국민카드 전무는 "책가방이 필요한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뜻 깊은 선물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의 선물' 캠페인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초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갑과 목도리 영양식 등을 지원해오다 2012년에는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으로 구체화됐다. 2014년까지 매년 5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KB국민카드 후원으로 1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총 5400여명의 예비초등학생들이 '선재의 선물'을 통해 학용품을 비롯한 책가방을 전달받았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아름다운동행의 '선재의 선물-책가방 전달식'에서 책가방을 전달받은 어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신재호 기자

'청춘학당' 들어가 노년을 즐기며 '인문학당'서 힐링

조계사, 65세 이상 시민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스님)는 65세 이상 불자 할머니, 할아버지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학당'을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 신도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학당은 오는 3월9일부터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2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경내 안심당 3층에서, 현대무용 강좌인 '룰루랄라 무용', 레크리에이션과 요가를 결합한 '레크요가', '스님과 떠나는 마음여행'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조계사는 "사찰에 와서 열심히 신행생활도 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신도들의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당'과 조계종 종무원 및 조계사 종무원 등을 위한 '선재학당'도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3월4일 개강하는 인문학당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붓다에게 길을 묻다-인생의 근본적 질문에 관한 불교적 답변들'과,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의 '논어를 통해 본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 등의 강좌를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불교대학교육관 4층 강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실시한다. 사찰 신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재학당은 종무원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우고 감동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까지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 학당은 3월부터 매월 한 차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사로는 김사인 동덕여대 교수, 안도현 우석대 교수,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 김민웅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조계사 교육국(www.jogyesa.kr)으로 하면 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신도는 곧 한가족이나 다름없다. 평생 조계사를 재적사찰로 기도하고 수행해온 노년 신도는 물론이고 조계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따뜻한 절'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점서 재검토해야"

불시넷 대불청 등 '대화 촉구' 성명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교류와 화해의 상징이 돼 온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정부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실행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을 당시에도 남북은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방식으로 평화를 일궈야 한다"며 중단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3일 대한불교청년회 또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불청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스스로의 발에 도끼를 찍은 행위와 다름없는 자해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불청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과 정반대로 나가는 길"이라며 "가동 중단 시일이 늘어날수록 남측 기업들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5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2월25일~3월11일 김천 직지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오는 25일부터 3월11일까지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5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진행한다. 16일간 이어지는 수계교육 기간 동안 행자들은 습의와 사미·사미니율의, 염불의식을 익히고 일보일배, 삼보일배, 3000배 정진을 한다.

다양한 강의도 이어진다.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도영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스님이 법문하고,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이 〈초발심자경문〉을 지도한다. 또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이 '참선 수행의 길'에 대해,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이 예경의 의미에 대해 각각 설한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은 '자비 실천의 삶'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회향식 하루 전인 15일에는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며 합격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수국사 사부대중 1500만원 모금

'총본산성역화 불사 기금' 기탁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스님, 사진)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수국사 스님과 신도들이 종단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성역화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십시일반 모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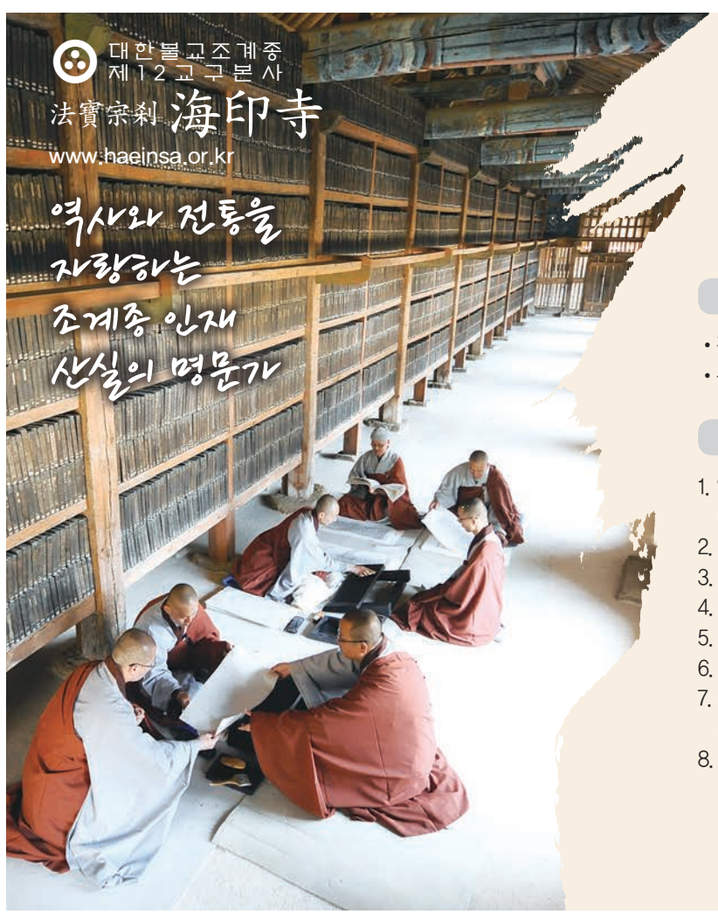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은 "종단의 숙원 사업인 성역화 불사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신도들과 모금을 진행해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요한 때 도움이 돼줘 고맙다"며 "불사에 요긴하게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해 새로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유럽지역 안거 명상 최적의 환경'
아마라와띠·담마디파 센터를 가다 14면



해인사 승가대학 입학안내

모집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 : 2학년 ····· 0 명
• 신입생 ····· 00 명

구비서류(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입학원서 ····· 1부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해인사에 와서 안내에 따라 작성)
2. 자기소개서(자필-6하원칙) ·····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적 확인용) ····· 각 1부
5.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법명, 본명(한글 · 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여권발급용)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승가대학(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류접수 : 불기2560(2016)년 3월 23일(수요일)까지
• 입방갈마 일시 : 불기2560(2016)년 3월 24일(목요일) 오전 8시
• 합격자 발표 : 불기2560(2016)년 3월 24일(목요일) 오후 6시
• 입학식 : 불기2560(2016)년 3월 25일(금요일)

특전
• 신입생의 해외 성지순례를 통하여 신심과 원력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과 필수로 나누어 매주 2회 시행함.
• 하나조노대학(일본), 법고산대학(대만), 칭화대학(중국)은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졸업자(고졸 동등 학력자 포함)에게 대학원 진학의 기회 우선 제공. (영어권과의 학술 교류도 추진 중)

해인승가대학 특징
• 전산 교육 시행 : 사찰 가람지기 교육, 세계 불교 데이터베이스 현황 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현대와 전통의 균형 있는 교육.
• 최신 장비를 갖춘 체력 단련실 및 잔디구장에서 체력관리 가능.
• 도서관 : 전통사찰 최초의 도서관이며 최대의 장서와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검색 시스템 완비.
• 6명의 상주 교수사 스님들에 의한 전통 교육 및 내실있는 현대적 교육 시행.

문의처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 934-3081, 3100
학감스님 (055) 934-3046, 010-3642-8106

해인사 승가대학장